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재현



요즘 TV 오락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감동과 휴먼은 기본이고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 기적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추세다.

신문을 즐기고 말한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며칠 동안 내 머리에는 '야식배달부 김승일'이란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

야식 배달부 김승일

다른 상처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함께 든 것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야식 배달부 김승일'이란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었고, 온 네티즌들의 환호와 지지의 글이 도배를 하고 있었다.

할 수도 있고 없었나라는 부정적인 생각마저 들게 됐다. 그래서 나는 전혀 안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킹 담당 PD에게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최근 늦게 귀가해보니 아내가 TV를 보며 울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영문인가 들어 왔더니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에 등장한 야식배달부 김승일씨 이야기 때문이었다.

에서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이란 제목으로 김씨를 위한 생애 첫 번째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난 그가 파바로티처럼 늦은 나이에 성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엄마를 일찍 여윈 한 청년의 맘에 따뜻한 희망과 용기만이라도 생기길 간절히 바란다.

김씨는 지금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번 레슨을 받고, 나머지 날에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연습을 한다. 그를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미소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시설

MB 정부 3년, 거꾸로 가는 지역균형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 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심정은 한마디로 허탈감 뿐이다.

고 영남 일색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영남 인맥이 장악하고 있다.

도를 넘어선 섬지역 교사들 '복무기강 해이'

전남 섬지역 일부 교사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다고 있다. 분교장을 맡고 있는 일부 교사들이 무단 결근이나 조퇴를 일삼는가 하면 학교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유용하는 등 '도덕적 불량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섬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는 2007~2009년까지 모두 56차례에 걸쳐 학교 회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 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했다고 한다.

의료 칼럼

정동환



올 겨울은 감추위와 폭설로 인해 감기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했다. '만병의 근원인 감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기를 예방하는 데 있고, 특히 영유아 또는 소아의 경우 감기로 인해 만성 비염, 중이염,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만 먹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와 비슷한 다른 호흡기 질환을 감기로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감기가 이미 다른 합병증으로 번져서 병을 키우는 경우이다.

기고

조태훈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도 좀처럼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 지역경제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 경제 정책이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순천만 조성이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연간 1000여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본 것이다.

감기의 한방치료

증상과 함께 입맛이 떨어지거나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다.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다.

의해야 한다. 또한 1년 내내, 혹은 한절기마다 콧물, 재채기, 기침, 눈 주위의 가려움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감기보다는 '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희망의 문 열다

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유원지로서만 여겨왔던 순천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습지 복원과 전신주 등 환경 저해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설하고 농업은 친환경 경관농업으로 전환하였다.

경제가 호전되었기 보다는 생태환경조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13년에 순천만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

無等鼓

'통큰 치킨'과 '통큰 넷북'으로 소비자들에게 원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롯데마트가 세번째 시리즈로 '통큰 LED TV'를 내놓았다.

'치킨'이 시발점이었다. '통큰 치킨'은 치킨 원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착한 통큰 상품일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차량 연비 개선 연료 절감기 효과 없어. 연료 절감기를 얼마 전 구입해 장착하게 됐다. 하지만 연료절감 효과가 클줄로 알고 계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연료 절감 효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logos and contact information.